

□ 특별기고-서울캠퍼스 김수곤 부총장

지식산업(大學)의 위기와 대처방안

학사행정개혁 없인 고등교육미래 없어 효율적 학사행정추진 명문대로의 첫걸음

경제불황의 여파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즘, 기업들의 위축경영은 학문의 전당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대학에까지 취업문제에 대한 고민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특히 대학교육시장의 개방 또한 이루어져 교육분야에서의 국제경쟁과 국내경쟁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시점에서 진리추구의 상아탑만을 강조하여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이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대학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학의 위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으며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지속적인 개혁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현재 대학평가인정제도라는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향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개혁은 내부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각 대학단위 차원의 개혁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 신문사에서는 우리학교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부총장의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작년 여름에는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 중장년층 직원들을 으스스하게 만들더니 금년에는 가을도 되 기전에 이미 후반기 취업문이 좁아져 대졸 노동시장엔 빙하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다. 교수와 학생과 직원 모두가 이같이 썰렁한 뉴스에 무관심할 수 만은 없다. 더욱이 대학이라는 서비스산업은 개방되고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피할래야 피할 수는 없다.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정직한 비판,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평가인정제도가 실시되기는 했지만 그중 많은 지표들이 교육의 결과치보다 투입량에 기준한 외부로부터의 평

것이 사실이다. 타인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합리적 제도의 개혁을 권장하면서도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에는 좀처럼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

취업해서 살아나갈 직업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것은 취업정보실의 책임만이 아니라 교무행정의 일선담당자인 우리 교수들의 것이다. 내

사회의 통념인 것 같다. 위로부터 아래로만 평가해 왔던 과거의 권위주의 탓이기도 하겠다. 그렇다고 평가가 없고 보면 조직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이다. 대통령도 교수도 사장도 근로자도 그 모두가 엄격한 평가를 받음으로서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학과(부)장과 학장이 교수의 학교 공헌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료교수끼리 전문분야 연구실적에 대해 평가해주어야만 교수개인의 연구에 발전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강의에 관한 평가를 해주어야 그 피드백에 의해서 교수강의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대학에서 다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엄격평가를 우리나라 대학이라 해서 못한다는 법칙은 없을 것이다.

그 어떤 평가이든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공평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그같은 평가가 없기 보다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요즘은 기업에서는 이와 같이 삼면평가를 함으로써 일부 편견이나 독선을 막아나가고 조직 전체의 사기와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출강부와 같은 외형적 통제에 의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연구실은 베이스 캠프처럼 들리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 살다살이 함으로써 교육의 질도 연구실적도 그리고 사제간의 끈끈한 유대도 형성되는 것이라 믿는다.

대뉴어 제도는 유지하되 그 운영을 학생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운영하고 봉급체계는 과감

대학간 학생모집경쟁 으로 세계는 지식산업 전쟁터된다

2003년에는 입학정원보다 대학지원자가 더 적어서 대학간의 학생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온 세계가 지식산업의 전쟁터로 변할 것이다. 국제경쟁은 차치해두고 우선 국내경쟁에서 살아남느냐 여부가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후배 없는 대학생과 직장없는 교직원이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쟁력없는 조직체는 속속 문을 닫고 평생고용이 한낱 그림의 떡처럼 되어가는 것은 제조업에 한한 것이 아니라 교육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것은 공연한 위기조성의 변이 아니다. 개방화의 물결이 우리가 원하던 원치않든간에 우리앞에 닥

가왔다. 과연 그같은 가시적 평가점수만으로 대학의 수월성(秀越性)이나 국제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개혁은 내부로부터, 그리고 풀뿌리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학생운동도 점차 탈정치, 탈이념화 하면서 대학내부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타대학이나 외국대학과의 실력경쟁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개혁에 전인차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교수집단이다. 우리학교 교수개개인은 투철한 교육이념과 제자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 직분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는 천사는 아니기 때문에 집단 내부에 공평한 경쟁과 건설적 비판이 없으면 편해지고 싶고 나태해질 수도 있는

정하면서 몇가지 혁신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수의 충원과정에서 '인브리딩'을 최소화 해야한다. 제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모교에 남고보면 타성에 젖고 인맥의 보호막 속에서 성장할 수가 없다. 지식의 근진결혼은 생물학적 근친결혼보다 더 큰 해악을 낳고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같은 맥락에서 교수의 대학간 이동이 더 많아져야 하겠다. 물론 이는 다른 대학들이 따라주어야만 하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이동이 없는 고집두려는 썩 녹슬고 만다. 유능한 교수일수록 보다 나은 대학으로 스카우트 당하는 풍토라야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화 될 것이다.

셋째로 학과내의 학문적 폐쇄성을 타파해야 한다. 종합대학의 학과들이 조직되어 있듯이 자연도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줄 착각해서는 안되었다. 학생들을 자기 학과내만 묶어두고자하는 편협한 학과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많은 학생들이 적성을 고려함이 없이 학과선택을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이상 졸업후 취업기회를 늘리기위해서라도 학과별 전공필수학점은 최소화하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타학과 과목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권장해야 옳을 것이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99%는 장차 각종 조직체에

사랑하는 제자가 좋은 학자가 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유능하고 성실한 직업인이 되도록 그래서 실업자가 되지않도록 길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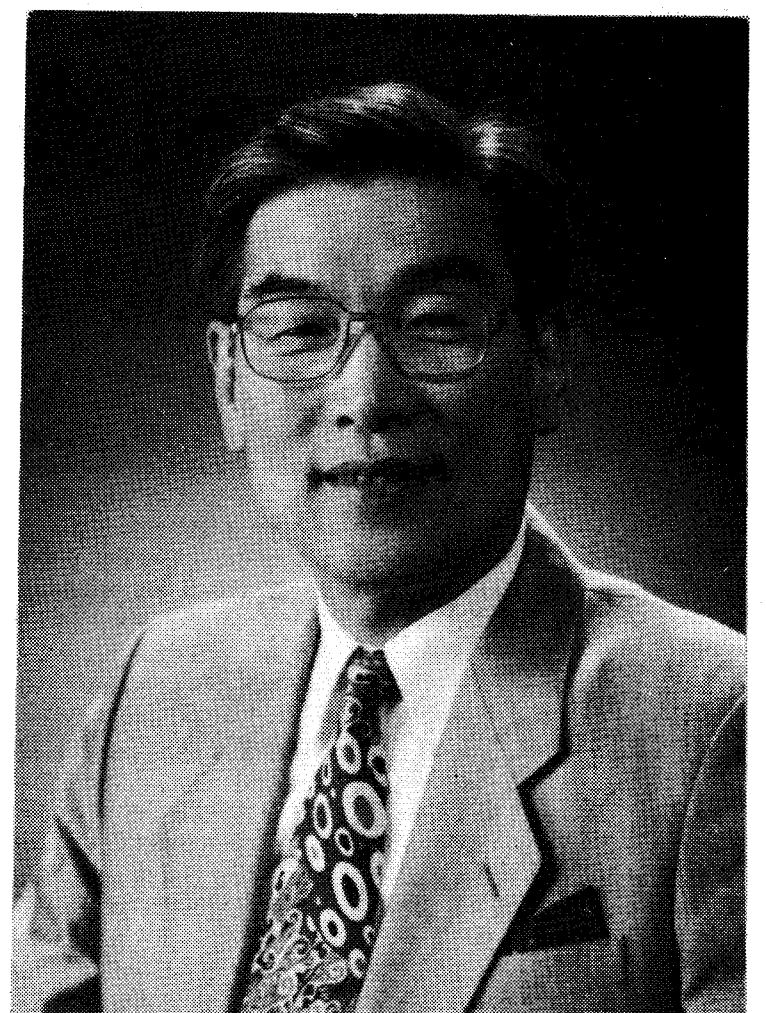
넷째로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학사관리를 엄격하고 공평무사하게, 입학은 쉬우나 졸업은 어렵게 함으로써 졸업생의 질도 대학의 명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암기력 경쟁이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전인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과감히 탈락시키고 노력에 상응하는 차별화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맹점은 노력하지 않는 학생을 숨여내지않고 졸업장만 남발하기 때문에 악화가 오히려 양화를 구축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외부로부터의 제도 개혁으로는 불가능하다. 막대한

학제 연구 통해 실리 추구하는 상아탑 돼야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불가능하다. 우리 교수 개개인이 과감히 앞장서야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에 대해 무조건적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학제 연구공급을 탈피하여 연구 및 공헌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합리적인봉급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차등봉급이 타대학으로부터 명성이 높은 교수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고



대학도 교과과정의 과감한 개편없이는 경쟁에서 낙오된다

쳐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한 삼면평가제도도 도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여섯째, 요즘 상아탑 밖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柔軟化)나 다운사이징이니 하는 말들이 유행한다. 이와함께 기업은 물론 정부도 교회도 각종 사회단체들도 고객만족을 위한 구조개편이 한창이다. 대학도 교과과정에 대한 과감한 개편이 있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문의 자유는 정부건 기업건 종교건 노동조합이건 심지어 교수자신들의 집단에 관해서까지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요하는 새 학문의 생성도 자유롭고 필요없게된 학과가 문을 닫을 자유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수요가 없어진 학과도 교수가 있으니 개설해두는 경우가 간혹있기 때문에 졸업후 구직과 구인간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자만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새로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과목들이 많아진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학과가 창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아탑속에서는 선배가

없었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체내에서 그런 과목을 개설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것이 고객만족을 도외시 해온 기존 대학들의 위기 실상인 것이다.

이미 대졸자 공급과잉으로 인해 졸업장이라는 간판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도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같은 값이면 기업이 대졸자보다 고졸자를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개방화 물결속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 그 개혁의 주체세력은 교수이어야 한다. 작든 크든간에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개혁에 앞장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미래가 없다고 필자는 믿는다. 21세기를 향하여 우리학교의 장미빛 비전이 실현되려면 학사행정의 수월성 즉 교육의 QC활동이 더욱더 가속화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학생의 선발과 개발과 자력증부여, 이 세가지 기능을 균형있게 추진할 때 21세기 대학다운 명문대학이 될 것을 확신한다.

제5의 맛은 우리나라에서는 감칠맛이 나는 발효미(味), 일본에서는 우마미로 대표됩니다.

우리나라의 발효음식이 내는 발효미를 일본에서는 일찍이 우마미(우리말로로는 맛중의 맛, 맛의 맛에 해당)라 공식명칭하고 있으며, 우마미조미료라 하여 수십년간 일본의 대표적인 맛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5의 맛은 글루탐산의 맛이며, 이것은 발효조미료의 맛입니다.

다시마, 멸치같은 천연재료가 내는 감칠 맛의 성분이 글루탐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조미료로 이용해왔습니다. 미원은 천연의 시판수수에서 추출한 원료이나 당밀을 발효시켜 얻은 글루탐산을 원료로 합니다. 따라서 제5의 맛은 바로 발효조미료 미원의 맛입니다.

'제5의 맛' 있다

단맛, 신맛, 짭맛, 쓴맛에 이어 제5의 맛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마이애미대학의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에 있는 맛들 가운데 글루탐산(MSG)에만 반응하는 것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이 맛을 표현할 적당한 영어가 없어 '우마미' 맛이라고 불렀다. 이는 '맛이 좋은 느낌'이라는 뜻의 일본말. 거의 모든 식품에 천연적으로 함유돼 있는 MSG는 화학조미료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다. 식품업체에선 스테이크나 식

토마토-감자-포도 등 함유 조미료성분 MSG에 반응 '우마미' 맛으로 이름붙여

사투에 MSG를 첨가하면 사람들의 식욕을 돋운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연구팀은 토마토, 포도, 감자, 사과, 오렌지, 버섯 등을 먹은 후 포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것들에 MSG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MSG는 지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미(미)정부는 지난 95년 MSG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선언했다. 이번 마이애미대학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로 우마미가 제5의 맛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식품업체의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97년 7월 2일자

朝鮮日報

제5의 맛은 전세계인이 즐깁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와 김치류, 젓갈류 등의 발효음식의 맛이 바로 제5의 맛에 해당됩니다. 이밖에 이탈리아의 라자니아, 중국의 굴스노 버섯튀김, 유럽의 고기국물 등 다양한 음식들이 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5의 맛은 아채나 채소, 육류, 어류, 그리고 모유에도 풍부합니다.

토마토의 상큼한 맛이나 콩으로 발효시켜 만든 된장, 간장의 구수함은 그 속에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갓난 아기가 먹는 젖에 글루탐산이 다량 들어있는 것은 아기의 입맛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IWON (주)미원